



COSCO 웨이지아푸 사장 중국선협 회장 연임

중국선주협회, 제4차 정기회의에서 만장일치로



COSCO그룹의 CEO인 웨이 지아푸(Wei Jiafu) 사장이 중국선주협회(China Shipowners' Association; CSA) 회장에 재임명되었다.

Association; CSA) 회장에 재임명되었다.

COSCO그룹은 지난 8월 31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회 중국 선주협회 회의에서 현 CSA 회장이자 COSCO 그룹의 CEO인 웨이 지아푸 사장이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재임명되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중국 통신부 Xu Zuyuan 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료 및 회사사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회장 선거에 앞서 웨이 지아푸 CSA 회장은 CSA의 연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도쿄 MOU 회원국 안전설비 등 집중 검사키로

안전 환경설비 검사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항만국 통제(PSC : Port State Control) 당국으로 구성된 도쿄 MOU(아시아지역 18개국)는 최근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협약)과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 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안전 환경설비에 대한 집중검사를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조작되고 있는지, 안전오염방지규정이 올바르게 운용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GMDSS의 조작성 보수 또한 포함된다.

유럽지역의 파리 MOU도 동시기에 해상조난 및 안전시스템(GMDSS : Global Maritime Distress & Safety System)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여, 아시아 유럽 전역으로 대규모 캠페인이 전개된다.

각 MOU에 의한 집중검사는 매년 행해지고 있고, 개정 SOLAS 협약이 발효된 작년에는 발효일인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도쿄 파리 MOU 합동으로 국제선박보안증서(ISSC : International Ship Security Certificate)의 비치 상황 등을 확인했다.

도쿄 MOU에서는 이번 집중검사기간 동안 방화와 구명기기 등 각종 안전관련설비가 적절하게

동 조약 실시 전후에는 선박의 대응지연이 염려되었지만, 도쿄 MOU의 검사 결과에 의하면 처벌율은 0.71% 밖에 지나지 않았고, 이는 조약 대응이 순조로웠다는 것을 증명했다.